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평화세상을 여는 녹색교회



하나님께서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 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서울시 용산구 청파동 3가 85 / 전화 713-5254 (사무실) 717-2605 (담임목사실)

HOME PAGE: www.chungpa.or.kr

주 일 낮 예 배 순 서

【 강림절 제3주 】

전 주 반주자
 은총을 기리는 노래 주의 전에 나올 때 다함께
 예배로의 부름 인도자

♠ 경배의 찬송 14. 구세주를 아는 이들 다함께

♠ 공동기도 다함께

자비하신 하나님, 모든 빛은 주님께로부터 옵니다. 세상이 다 잠 들어 어두운 때 홀로 하늘을 응시하던 동방박사들의 그 마음을 우리에게도 주십시오. 하늘의 징조를 알아차릴 수 있는 영혼의 예민함을 주시고, 주님의 현존 앞에 나아가 가장 소중한 것을 바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못한 '나'를 내려놓지 않고는 주님의 길을 걸을 수 없음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유조선에서 흘러나온 기름이 바다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아팠습니다. 죽어 가는 피조물들의 신음소리가 너무도 크게 들렸습니다. 지금 절망의 어둠 그늘 가운데를 걷고 있는 이들을 어찌해야 합니까? 오늘 우리의 희망은 이처럼 위태롭기만 합니다. 주님, 우리가 부르는 희망의 노래가 현실이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참회의 침묵기도 다함께

♠ 위로의 말씀 시121:5-6 인도자

♠ 교 독 문 45. 요한3장 다함께

♠ 영 광 송 6. 찬양 성부 성자 성령 다함께

대표기도 I. 김서현 선생 II. 한완식 장로

응 답 송 찬양대

찬 송 96.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다함께

성경봉독 I. 마2:1-3 인도자

II. 계12:1-6 박석희 집사

찬 양 찬양대

말 씬 I. 구도자 김재홍 목사

II. 해를 입은 여인 김기석 목사

거듭기도 다함께

찬 송	421. 나는 갈 길 모르니	다함께
봉 헌	<찬양 : 류건형>.....	다함께
♠ 봉 헌 송	69. 나 가진 모든 것(1,2)	다함께
♠ 봉헌 및 목회기도		인도자
공동체 소식		인도자
♠ 평화의 인사		다함께
♠ 보냄의 말씀		다함께

인 도 자 :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작고 여린 것들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십시오. 돌봄과 나눔의 실천을 통해 세상을 살만한 곳으로 바꾸십시오.

다 함 께 : 아멘.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습니다. 용의 권세가 아무리 강하다 하여도 순결하신 예수님을 이길 수 없음을 믿습니다. 고통과 시련의 가시밭길을 걷는다 해도 결코 거짓에 투항하지 않는 깨끗하고 끈질긴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주십시오. 아멘.

♠ 결단의 찬양	하나님 눈길 머무신 곳	다함께
♠ 축 복		담임목사

☀ **우리는 주님의 빛을 받아 환히 열린 미래를 봅니다** ☀

주일 오후 집회	수요 집회
동호회	성서로 배우는 평화/김기석 목사
아름답도다, 형제자매의 사랑!	기도 : 김재영 집사

다음 주 예 배 위 원	설교	기도	성경봉독
	김재흥 목사 김기석 목사	곽권희 집사 구성실 장로	인도자 박효선 권사

12월	영접위원	조병무	김훈동	정원석	안정숙	유경순	김현영
	헌금위원	윤석철	홍순구	김중수	이순정	박혜경	백혜숙

믿게 하는 것은

♠ 믿게 하는 것은 참이다. 이랬다저랬다하는 것으로는 나를 믿게 할 수 없다. 소금 한 알을 입에 집어넣고, “아, 짜다!” 했을 때 나는 그 잘 봐지도 않는 한 알에 내 전신을 들어 행복하는 것이다. 흉악한 독재군주의 권력과 무기는 다 거부할 수 있어도 소금 한 알의 짠맛을 짜지 않다는 것은 없다. 그것이 참이다. 그러나 그 짠은 또 내 속에 본래부터 짠이 들어 있지 않고는 받아들일 수 없었을 것이다.

♠ 믿게 하는 것은 사랑이다. 나를 두렵고 겁나게 하며 슬프고 낙심하게 하는 것으로는 나를 믿게 할 수 없다. 빛 한 가닥이 어둠 속에 들어오는 순간 “아 밝다, 아 따뜻해!” 했을 때 나는 내 전신을 들어 감사, 찬송하는 것이다. 부부애, 동포애는 잊을 수 있어도 이 빛의 사랑은 잊을 수가 없을 것이다. 그렇지만 이 사랑도 생명 속에 본래 밝고 따뜻함이 들어 있지 않고는 알아볼 수 없을 것이다.

♠ 믿게 하는 것은 또 스스로 함이다. 물질계에서 같이 무자비한 법칙만이 다스린다면 나는 믿을 수 없다. 가벼운 바람이 스치고 지나감을 당하고 저도 모르게 “아 시원해!” 했을 때 나는 내가 바람인지 바람이 나인지 모를이만큼 자유한 것이다. 그것이 스스로 함이다. 그러나 스스로 하는 이 우주의 숨결은 또 내 속에도 본래부터 들어 있었다. 그러므로 그것을 알아보고 하나가 된 것이다.

♠ 하나님은 있는 이라기보다도 영원히 있으‘려’는 뜻이다. 영원의 미완성이다. 그 무엇이‘려’ 하는 데서 영원이 나오고 또 무한이 나온다. 그러므로 역사는 자꾸 변하게 마련이다. 그러나 또 역사가 흐르는 별같이 미처 볼 새 없이 변하기만 하는 것이라면 또 생명일 수 없다. 실지로 그런 존재는 없다.

♠ 하나님은 무한히 기다리시는 이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매정한 듯, 때로는 엄혹한 듯, 우리 마음을 혼드시는 것이다. 그것이 참 사랑이다.

나를 나무나 돌같이 아니 보시고 혼이 있는 인간으로 보아주시고 어린이로 여겨 그저 오십 년도 칠십 년도 젖으로 먹이시려 하지 않고 굳은 물건을 먹여 스스로 하는 생명으로 자라기를 기다리신다. 사람들은 특하면 하늘이 무심하다 하지만 사실은 제가 무심해 하늘 마음을 모르는 것이다. 잔혹한 듯 내버려두시는 것은 내 속에서 겨울 꽃망울이 자라게 하기 위해서다.

♠ 하나님은 다른 데선 만날 데가 없고, 우리 마음속에, 생각하는 데서만 만날 수가 있다. 어느 산에 가면 만나는 것 아니고, 어느 물 속에 들어가서 만나는 것도 아니다. 하나님은 어느 곳이라고 하는 데에 없다. 어느 곳이라고 말할 수가 없고, 어느 시간이라는 것도 없다. 그거는 시간, 공간을 다 잊어버리고 내 마음을 될수록 순수하게, 잡념을 없애고—그런다고 잡념이 저절로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참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셨다고 그렇게 밖에 말할 수 없는 건데, 그런 거는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해야 된다. 마음이 겸손하지 않고는 안 된다.

♠ 하나님은 산 인격이다. 산 인격이기 때문에 영원하다. 영이다. 영원이기 때문에 모든 유한적인 존재를 낳을 수 있다. 영적이기 때문에, 정신적이기 때문에 모든 육적인 것의 원본이 될 수 있고 또 그 궁극의 의미가 될 수 있다. 형질을 쓴 인간도 영원을 바라고 영화하기를 꿈꾼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그는 이 유한과 이 물질을 못 떠난다. 그리하여 지상천국을 그린다. 그러나 그럴수록 그는 영원의 바퀴에 찍히고 영의 날개에 부딪혀 미진으로 되어 어둠 속에 가라앉는 자기를 발견한다. 여기 근본 모순이 있다. 이것이 종교다. 그는 자기를 가장 하잘것없는 것으로 가장 어둔 것으로 자각할 때 영원한 영으로 화한다.

♠ 하나님은 인식의 대상이 아니다. 믿음이지. 다시 말한다면 받아들일 하나됨이지 뜯어보고 알 물건이 아니다. 믿으면 아는 데 이르지만, 감히 알기부터 먼저 하려 하면 뒤집혀진다. 하나님을 정면으로 보면 죽는다고 했다. 그는 그 앞에 우리가 보일 이지 우리가 볼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그 앞에 나갈 때는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야 한다. 자기를 전적으로 부정함이다.

--함석헌 명상집, <<너 자신을 혁명하라>> 중에서

■ 마/음/으/조/워/는/글

겨울의 노래

별거숭이 몸으로 겨울을 가리라.
아무 것도 걸치지 않은 영혼
벗은 사랑의 맨발로
그대에게 이르리라.
다 떨어져 나간 빈 뜰의 등불
잠들지 못하는/얼굴은 고독하고 아름답다.
이제 나도/절망과 아픔을 벗어버리고
아직 별이 떠 있는
이 겨울밤 끝으로 떠나리라.
거기 붉게 동터오는 하늘 아래 가서
순수한 두 팔의 날개로만/서 있으리.
아아/그런 알몸의 악기로 걸어가리.
나무는 벗어서
벗은 몸끼리 더욱 가까이 빛난다.
서로의 등뼈를
서릿빛 하늘에 비추고 서 있다.
그 곁에서 기도하며
저녁 눈시울처럼 겸허하게 떨며
그대에게 바치는 노래를 준비하리.
겨울은 순수한 맨발로 가리.(이성선)

◇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 ◇

담임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흥 원로전도사 : 박옥식
전도사 : 장영숙 이성운 소속목사 : 김준우 한인철 양재성
원로장로 : 김춘려 전영규 김성한 윤정덕 강인식
장로 : 김철수 조병무 한완식 구성실 윤석철 방문성 한상익
지휘 : 윤주원 안홍숙 반주 : 최윤선 한선희 김수진 최미선
차량 및 교회 관리 : 오진훈 도서관 관장 : 이순정

◇ 헌 금 영 수 기 ◇

십일조헌금:

박옥식 박병규 장영숙 권호천 배삼순 김중수 이순정 고광송 이춘희
 서원금 오진훈 노순옥 임원민 임수연 최종미 권미숙 이성운 박홍엽
 윤석철 장혜숙

월정헌금:

고속이 문복순 윤성종 김윤정 이갑재 최윤희 하현철 최성애 황경순
 김지현 김지은

감사헌금:

장영숙 김중수 이순정 왕성한 강순배 박찬정 최동운 박권동 유경민
 오정숙 한지혜 4남선교회

생일감사헌금: 송양진 캄보디아 우물헌금: 권미숙

100주년 기념헌금 : 김준우 장영숙 이영순 박영이 제7여선교회
 (100주년 헌금 누계: 129,760,000원)

◇ 속 회 보 고 ◇

속 명	인 도 자	속 장	모 인 곳	다음 장소
예루살렘	장 혜 숙	장 혜 숙	연 합 속 회	심
베들레헬	노 순 옥	정 경 례		
안 디 옥	임 정 자	이 춘 희		
가 나 안	문 영 혜	박 경 선		
갈 린 리	안 정 숙	박 애 순		
베 다 니	박 홍 재	곽 권 희		
시 온	박 효 선	허 정 윤		
엠 마 오	최 숙 화	권 미 정		
에 베 소	이 순 정	김 금 순		
빌 립 보	이 형 숙	권 미 숙		
가버나움	안 흥 숙	오 현 정		
나 사 렛	백 혜 숙	정 옥 영		
갈라디아	송 양 진	유 경 순		
고 린 도	이 영 란	이 증 자		
다 메 섹	박 혜 경	최 영 혜		

■ 교/회/소/식/

◎ 그리스도인에게 선교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

1. **동호회** : 오늘 오후 2시부터 동호회 모임이 있습니다.
2. **새임원 모임** : 지난 주 당회에서 새 임원으로 피택되신 분들은 예배 후 중고등부실로 모여주십시오.
3. **100주년 팀장회의** : 오늘 오후 2시부터 백주년 기념사업 팀장 회의로 모입니다. 꼭 참석하여 주십시오.
4. **하늘양식** : 가정예배서 [하늘양식]을 신청받습니다. 한 가정에 한 권씩만 신청 가능합니다.
5. **전화번호부** : 2008년 전화번호부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번호가 바뀌신 분들은 사무실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6. **봉사** : 허베이 스피리트 호 기름 유출 사고로 말미암아 큰 시련을 만난 이들을 돕기 위해 태안군으로 봉사활동을 갑니다. 화요일(18일) 오전 7시 20분에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사무실로 신청해주세요.
7. **성탄절행사** : 12월 23일 오후 시간은 성탄축하 행사로 모입니다. 12월 25일 성탄절예배 시간에는 찬양대의 칸타타 연주가 있습니다.
8. **신앙실천** : 내복 입기를 생활화하십시오. 일상의 모든 순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수행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 식당 봉사 : 갈릴리 속

토요봉사(22일): 백혜숙

* 캄보디아 우물 기부 신청자 : 이광섭 조문규 김명순

◇ 집 회 안 내 ◇

부별	시간	장소	부별	시간	장소
유 아 부	10:50	유아부실	1부예배	09:30	교육관
유 치 부	10:50	유치부실	2부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	10:50	교육관	오후집회	14:00	교육관
중고등부	10:50	중고등부실	수요집회	19:30	교육관
청 년 회	13:30	청년회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